



거부할 줄 아는 용기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 살면서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 나 역시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사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련이었다. 동시에 만약 그때 유혹에 빠졌다면 수월하게 더 높은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부패 사례와 이를 극복한 경험을 뽕뽕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 찰나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수기 공모전의 공문을 보게 되어 용기 내어 사연을 게재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난 평범한 경찰 공무원 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부친을 따라 양구, 서울, 수원 등을 이사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이다. 나의 직업은 군인이다.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현재는 소령으로 서울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런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잊지 못할 부패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느덧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2월 나는 소령 학교기관인 육군대학에서 소위·대위 학교기관인 보병학교

교관으로 보직을 명령 받아 전출을 가게 되었다. 학교기관에서 복무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후배 장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고민, 흥분, 기대를 하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학교정문을 통과한 기억이 생생하다. 보병학교장님의 전입신고를 시작으로 기존에 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는 교관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인사를 하였다. 처장님, 과장님, 선배 및 인접교관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보병학교에서 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강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연구 강의는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연구 강의 준비는 나에게서는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연구 강의 과목의 변천사 및 교과체계 파악, 관련 교범 및 교육자료 숙지 등 교관으로서 맡은 과목에 대한 뿌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나의 것으로 소화해 가는 과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훌륭한 교관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버텨 나가고 있었다. 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이 나에게서는 큰 위로가 되었고, 야간 및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연구 강의 준비에 매진하였다. 이런 연구 강의 준비과정은 그동안 학교기관에서는 당연 시 되어 왔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일반 직장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보병학교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처-과 단위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당연히 처에는 처장이 있으며 과에는 과장이 편성되어 있다. 나 역시 과장의 통제를 받는 과원의 교관이었다. 과장은 중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에게서는 1차 평정권자이고 2차 평정권자인 처장과도 유대관계를 통해 과원들의 좋은 평판이나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리이다. 이것은 일반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과장에게 어떻게 하면 연구 강의를 멋지게 해서 ‘첫 이미지를 좋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임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보직되어 복무하고 있는 선임교관들에게 ‘과장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온 선임교관들의 대답은 과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면 아내하고 같이 과장님 댁으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할 것이다’, ‘선물은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언급할 것이다.’ ‘설·추석 명절, 과장 생일 때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 질 것이다.’ 등 그동안 선임교관들이 과장으로부터 경험했던 부패행위를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그 때, 나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경험한 적도 없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의 적응과 연구 강의 준비는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임교관들이 조언해 준 말대로 나에게도 올 것이 왔다.

어느 날, 과장이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얼굴도 모르면 실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가족을 초대하였다. 나는 좋은 취지에서 과장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선임교관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부대 전입 후 상급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과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장에게 ‘언제쯤 찾아보면 좋겠습니까?’ 여쭙어 보았다. 과장은 ‘이번 주말에 괜찮은 것 같다. 누가 보면 오해 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찾아오고 애들은 시끄러우니까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찾아 올 때는 네가 빈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일 수 있으니까 고민을 덜어 준다는 입장에서 상품권으로 해라!’라고 노골적으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과장이 나에게 했던 말대로 선물을 가져가야 하나? 나는 선임교관들과 가족하고 상의를 했다. 결과적으로 ‘과장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은 예의이며 과장에게 잘 보여야 평정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과장이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고, 갈 때는 선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는 ‘어느 정도의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을

시작했다. 선임교관들도 ‘나도 전입 와서 인사를 드렸고 선물도 드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선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고민 끝에 상품권 20만원과 와인을 3~4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하고 과장 댁으로 찾아갔다. 과장은 나와 가족에게 덕담을 하기 시작했다. ‘본인이 나를 우리 과의 교관으로 선발하였고, 열심히 하면 진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 복무하고 있는 교관도 본인이 진급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었다. 과장과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생생하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진급하려면 과장에게 계속해서 돈이나 선물을 해야 하나? 혹시 안 주면 당신 진급하는데 영향이 있는 것 아니야?’ 결혼해서 지금까지 전방 격오지에서 나만 바라보며 내 옆을 지켜준 우리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난 충격이었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복무하면 이 위기(危機)가 호기(好氣)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상급자에 대한 예의로서 할 도리를 했다.’라고 내 자신을 회유하면서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나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야간까지 교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나는 오후 아홉 시 즈음 과장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뭐하냐? 나 어느 술집에 있으니까 나와라!’라는 전화였다. 나는 직감에 과장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과장이 있는 술집으로 찾아갔다. 역시나 과장은 술에 취해 있었다. 과장은 ‘연구 강의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우리 아가씨도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동안 과장이 선임교관들에게 상습적으로 요구했던 향응 부분이 떠올랐다.

‘아! 지금 과장하고 술자리를 하게 되면 군인,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공손한 자세로 과장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과장님!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저녁도

먹지 못해서 가족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에 과장은 ‘그래! 나 혼자 먹을게. 집에서 밥이나 먹어라!’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계속해서 집에 가라고 말했다. 나는 ‘내일 과장이 술을 깨면 내가 한 행동에 고마워하겠지!’ 하는 마음에 술집에서 과장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지 10분 정도가 흘렀다.

과장에게 전화가 왔다. 격앙된 목소리로 ‘너 같은 놈은 처음 보았다. 나를 두고 네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냐? 앞으로 두고 보자.’식의 욕설과 폭언이 있었다. 과장의 욕설과 폭언은 약 10분 정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상스러운 말로 나를 공격했다. 나는 ‘일단 술에 취해 있는 과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에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장의 욕설과 폭언이었다. 문자로도 얼마나 많은 사죄의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다. 나의 그 동안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말았다. 다음날 출근을 해서 선배 동료들과 상의를 했으나 별다른 조언은 없었다.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해라는 것 이외는 없었다.

과장실로 찾아갔다. 어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과 죄송함을 표현하였다. ‘과장님! 어제는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으나 과장은 ‘얼굴 보기 싫다! 연구 강의 준비도 네가 알아서 해라! 다시는 나에게 찾아오지 마!’라는 냉랭한 말씀만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 해 줄 것으로 나는 믿었다. 매일 아침마다 과장 사무실 청소와 정리를 하였고, 일일단위 연구 강의 준비경과에 대해서 과장에게 보고하였다.

술집에서 일이 있던 날로부터 1주일 정도가 흘렀다. 과장이 반응을 하였다. ‘네가 많이 반성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날 네가 예의없이 한 행동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화가 나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차량 수리비가 60만원 가량 나왔으니 네가 부담해라.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없었던 일로 하고 너를 용서할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인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으면 본인이 어떻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겠는가?’

나는 ‘이 사람이 혼자 술 먹고 나온 금액을 나에게 청구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나는 ‘과장이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과장은 진급 평정 점수를 당연히 나쁘게 줄 것이고 이런 사람을 고소하면 상급자를 고발한 나쁜 부하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은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주변 교관들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가족끼리만 상의했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이렇게 군 생활을 할 바에는 군 생활을 그만 두자! 돈으로 진급해서 어떻게 하겠나? 이런 사람은 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더 이상 잘못된 것을 뉘돌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굳은 각오 끝에 과장보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인 처장실로 찾아 갔다. 처장을 찾아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 처장님은 과장보다 계급은 높았지만 같은 학교 출신이고 과장보다도 1년 후배 이였기 때문이다. 처장님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주셨다. 나에게 ‘지금까지 과장에게 당했던 반부패 행동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일사천리로 학교장님께 보고하여 과장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조기 전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셨다. 이 과정에서 처장님은 선배장교 뿐 아니라 동기생들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 등 곤란을 많이 겪으셨다고 나중에서야 들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지금도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진급이라는 유혹을 극복한 나 자신에게도 감사!’

‘나를 믿어준 가족에게 감사!’

지금까지 내 사연을 보다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은 ‘다른 곳에서 지금도 나와 같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이런 사연들이 모여서 반부패 문화가 척결되기를!’하는 마음이다. 상급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용기를 내어 조직의 문화를 쇠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나’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처음에 과장이 선물을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나’에게도 부끄러울 따름이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준 ‘가족’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나를 믿고 조치해 주시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처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지금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다시는 내가 겪었던 일들을 포함하여 조직 내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